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7. 5.(금) 11:00 < 7. 6.(토) 조간 > 배포 2024. 7. 5.(금)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전력망 적기 건설방안 논의

-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 열려
-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적기건설, 계통안정화 설비·제도 보강 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5일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최근 증가하는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에 이어 2번째 협의회이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할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해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 전력망 부족현상을 해결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08년 계획 이후 공사진척이 없었으나, `23년 전원개발 승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송전선로 11개 구간(동부 7구간, 서부 4구간)의 전원개발 승인을 모두 마치고 `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인허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애로와 요청사항을 수렴하였다.

* 송전탑 설치를 위한 진입로, 작업장 부지의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또한, `22.9월부터 구성된 '산업부-한전-거래소 동해안 제약완화 전담반(TF)'를 통해 추진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대책을 공유하고 송전제약 전력구매계약(PPA)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전력계통 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동해안 지역은 다수 기초지자체를 경과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 계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동해안 협의회에 이어 계통 현안이 발생하는 제주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맞춤형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3-3930)
		담당자	사무관	박성열 (044-203-393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 개요**

1. 개 요

□ (일시) 7. 5(금) 15:00~16:30

□ (장소) 강원특별자치도청 회의실

□ (참석)

○ (산 업 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장

○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장, 에너지정책과장

○ (경상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장

○ (유관기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 (주요내용) 전력망 적기건설, 발전제약 해소방안 등 맞춤형 대책 논의

2.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05′)	· **모두발언**	산업부/ 강원도/경북도
15:05~15:35 (30′)	· **주요 안건 발표** - **동해안 전력망 건설현황 및 협조 요청사항** - **동해안 발전제약 완화 대책 등**	산업부/거래소/한전
15:35~16:30 (55′)	· **자유토론**	참석자